

“솔라시도, 기존 도시문제 해결 미래도시 모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사업 가이드라인 ‘컨퍼런스’ 친환경·관광레저·스마트시티 등 5대 콘셉트 확정

해남에 조성 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4일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참여 중심 도시개발을 선언했다.

솔라시도 개발 전담 특수목적법인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이날 서울 송파구 한양타워에서 ‘솔라시도 개발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솔라시도는 도시현장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비롯해 ▲관광레저 ▲미래산업 ▲포용·복지 ▲스마트시티를 5대 도시 콘셉트로 설정했다.

솔라시도는 이를 위해 수요자 의견을 사전에 파악하에 이 부합하는 적정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신속하게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솔라시도를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율과 보행자 중심도시, 신재생에너지, 자율전차 등 사람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례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비제조업 중심의 관광·정원·식품·건강산업 등을 4대 주력산업으로 선정, 지역경제와 특성을 고려한 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5G 등을 기반으로 주거와 교육·의료·문화 등의 기능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도시로의 개발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부원장,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수 세한대 교수, 노영순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신현욱 KT 스마트시티 담당 상무, 김석태 송도 PMC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체계적인 도시개발 방안을 모색했다.

김경민 부원장은 “솔라시도는 기존 도시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미래도시 모델이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구조와 단계적 개발을 통해 도시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관계자는 “친환경 미래도시라는 솔라시도의 추진 비전에 대한 대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전략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 등 4대 산업의 적극 육

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기업도시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해남 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구성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보성산업, 한양 등 민간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약 33.9㎢ 규모로 1조8,664억원의 조성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도시조성 사업이다. (주)한양, 보성산업(주) 등과 함께 보성그룹에 속해 있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계획인구는 약 3만 8,000여명이다. /김영민 기자



한빛 3·4호기 원전 공극 유관기관 협의체 출범식. 노영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빛 3·4호기 원전 공극 유관기관 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일 도의원, 유권자연합 ‘최우수 의원’

농어업 발전·농어민 경영안정 등 기여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호남유권자연합이 뽑은 ‘2019 최우수 광역의원’에 선정됐다.

재선인 김 의원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농촌발전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 가격 하락과 이상기후,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해 왔다.

특히 배추·양파 등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채소류의 가격 폭락이 계속되자 ‘국산 김치 소비촉진 운동’을 제안해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단체,



지역음식점,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상향식 주민참여 운동을 실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 현장을 뛰어다니며 농·어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유권자연합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선정해 매년 표창해 오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3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진행됐다. /정근산 기자

광주에 ‘인공지능 융합클러스터’ 조성

정부, 연내 AI 국가전략 마련...데이터 경제화도
내년 5월 드론교통 로드맵 발표...드론택배 확산

정부가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한다. 내년에는 ‘드론교통 로드맵’을 발표하고, 도심지역 드론택배를 확산한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보완계획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앞으로 4+1의 전략적 틀 하에서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 전략적 틀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의 신규 창출,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적, 제도적, 공통으로 뒷받침하는 소위 제도·인프라 혁신 등이다.

정부는 먼저 연내에 관련 규제·법·제도 확립 방안과 초·중등교육을 포함해 전국민 AI 교육방안을 담은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차세대 AI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에 AI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학습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AI 바우처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데이터 3법 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에 이어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정부 R&D 예산을 4조원 투자해 신약분야 원천기술,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등 기초기술과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바이오헬스 규제개선로드맵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내년에 2,000명 규모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5월 도심공중 모빌리티(UAM)로의 드론산업상대계 확장을 위해 드론교통로드맵을 발표하고, 드론택배 도심지역 실증 테스트베드를 내년 4곳에서 2022년 10곳까지 늘리는 등 드론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이와 함께 기존 산업혁신을 위해 내년에 데이터와 AI기반 스마트공장과 산업단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약 6조원 규모의 서비스R&D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강병은 기자

민형배 광산을 지역위원장 총선 행보

9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15일 출판기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이 오는 17일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한다.

민 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시의회에서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10일 오전에는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상연재’에서 유명 유튜브 채널(‘새날’)을 통해 온라인 출마기자회견을 갖는다고 4일 밝혔다.

민 위원장은 지난 8월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 퇴임 후부터, 충남 아산시장을 지낸 복기왕(정무비서관),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영배(민정비서관), 서울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우영(자치발전비서관) 등 자치단체장 출신의 전 청와대 비서관 3명과 함께 유튜브 채널 ‘새날-파란남자들’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15일 오후 4시 30분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이틀 3명과 공동 출판한 ‘정치’의 반전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마을주의자 일공세대의 도전’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지역정치를 이끌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한 공통경험을 갖고 있는 ‘일공(2010년)세대’의 꿈과 비전을 담고 있다.

한편, 민 위원장은 공정경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침에 따라 오는 12일 광산구을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 /황애란 기자

전남 응급처치교육 강화 이장석 도의원, 지원조례 발의



전남지역 교육현장의 응급처치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마련된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2)은 최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법을 학교에 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숙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규정했다. /정근산 기자

M 전남매일 함께육아 캠페인

같이 하는
함께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